

중동발 리스크 광주지역 기업 경기 '직격탄'

2분기 제조업 체감경기 '75'로 급락

1분기 소폭 반등 기대감 다시 꺾여

원자재·에너지 비용 급등 영향 반영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광주지역 기업의 경영 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상공회의소는 광주지역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2분기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 결과, 전 분기(89) 대비 14p 하락한 '75'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 1분기 소폭 반등했던 기대감이 한 분기 만에 꺾인 것으로,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가·환율·물류비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며 지역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다시 악화됐음을 보여준다.

특히 자동차 업계의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원부자재가 상승 부담을 직접적으로 떠안은 중소기업들의 위기감이 지수 하락의 결정적 요인으로 분석된다.

BSI는 100 이상이면 다음 분기 경기가 이번 분기보다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경영항목별로는 매출액(86→90)이 일부 상승 기 효과와 신규 수주 기대감으로 소폭 상승했으나, 실제 수익성 지표인 영업이익(79→75), 설비투자(93→89), 자금사정(71→64)은 일제히 하락했다.

이는 기업들이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고유가·고환율에 따른 원자재 및 물류비 상승 등으로 수익 구조가 악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자금사정(64) 지수가 전 항목 중 가장 낮게 나타나 기업들의 유동성 압박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로도 상반기 경영에 영향을 미칠 주요 리스크 요인을 묻는 질문에 '원자재·에너지 비용 상승(61.7%)'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이어 '지정학적 리스크(30.8%)', '소비 회복 둔화(25.2%)', '자금조달 및 유동성 문제(21.5%)'순으로 나타나 비용상승과 더불어 외부 변수에 대한 부담감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상반기 투자계획 이행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계획대로 진행(53.3%)'이 과반을 차지했으나, '당초 계획보다 축소·지연' 응답도 41.1%에 달해 투자 위축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투자 축소·지연 사유로는 '수요 등 시장 수요 약화(36.4%)', '관세·전쟁 등 통상환경 변화(20.5%)', '에너지·원자재 등 생산비용 상승(18.2%)'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업종별로는 자동차·부품(122)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기준치(100)를 밑돌며 부진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전자제품·통신, 철강·

금속, 화학·고무·플라스틱 등 주요 업종에서 큰 폭의 하락세가 나타났다.

'전자제품·통신(81→50)'은 IT 수요 둔화와 가전 소비 위축, 발주 지연 등이 겹치며 부진이 심화될 전망이다. 계절가전 생산 확대와 일부 신규 사업 기대가 하락 폭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부품(90→122)'은 신차 효과와 생산 확대, 안정적 수출 물량을 바탕으로 유일하게 기준치를 상회하며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기계·장비(95→82)'는 건설 경기 침체와 설비 투자 축소 영향으로 부진이 지속되나, 자동차 산업 호조에 따른 일부 장비 수요가 하락세를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철강·금속(67→20)'과 '화학·고무·플라스틱(88→0)'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수요 둔화가 겹치며 업황 악화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식음료(100→40)'는 원가 상승과 소비 위축

영향으로 체감경기가 크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중견기업(86→150)이 원상차 중심의 생산 확대와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호전' 전망을 보인 반면, 중소기업(90→67)은 원자재·물류비 상승과 내수 소비 심리 위축 등의 영향으로 '악화' 전망이 우세했다.

수출 규모별로는 수출기업(86→64), 내수기업(90→78) 모두 하락세를 보이며,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와 내수 소비 위축이 동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상공회의소 채하석 상근부회장은 "자동차 수출 호조라는 긍정적 요인이 있으나, 중동 분쟁으로 인한 물류비 급등이 기업 수익성을 직접적으로 압박하고 있다"며 "내수 진작 정책과 더불어 긴급 경영안정자금 확대, 물류비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대응이 시급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임채만 기자

농어촌공, 봄 가뭄 대비 선제적 용수 확보 '총력'

최근 5개월새 강수량 평년 67.3%

대상 지구 62곳서 115곳으로 확대

한국농어촌공사는 올 봄 농업인이 물 걱정 없이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가뭄 대응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최근 5개월간(2025년 11월1일~2026년 3월31일) 전국 누적 강수량은 130.9mm로, 평년 194.5mm의 67.3% 수준에 머물렀다. 주말부터 월요일까지 이어진 비가 해갈에 일부 도움이 됐지만, 본격적인 영농기를 앞두고 물 부족 가능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저수지 3천428개소의 평균 저수율은 6일 기준 85.8%(평년 대비 1.07%)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인 저수 상황은 양호하지만, 지역별 강수 편차가 크고 기상 여건 변화에 따라 가뭄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공사는 선제적 가뭄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는 '사전 용수 확보 대책 수립 대상 지구'를 당초 62개소(8천642천ha)에서 115개소(1만6천634천ha)로 확대했다. 농업용수 수요가 가장 집중되는 모내기철 이전에 용수를 충분히 확보해 농업인이 원활하게 영농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공사는 봄 가뭄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비 하라는 대통령 지시 사항에 따라 현장 맞춤형 급수 대책에 집중하고 있다.



코스피, 종전 협상 가시권에 7% '경중' 미국과 이란이 2주간의 휴전에 사실상 합의한 가운데 8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지수 등이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 대비 377.56포인트(6.87%) 오른 5,872.34로, 코스닥 지수는 53.12포인트(5.12%) 오른 1,089.85로 마감했다. /연합뉴스

하천의 물을 저수지와 용수로로 끌어올려 비축·공급하는 방식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방안을 적용해 영농기 급수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과 긴

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며 가뭄 상황과 지역별 용수 확보 대책 이행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며 "기후변화로 인한 극단적인 기상 상황이 잦아지는 만큼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선제적 용수 확보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채만 기자

경웃값 유럽 32% 땀 때 韓 8% 최고가격제 '버티기' 한계 우려

중동 전쟁이 발발한 이후 한 달간 유럽의 자동차용 경유 가격이 32% 오를 동안 한국은 8% 가량 오르는 데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30년 만에 시행된 석유 최고가격제 등 정부의 고강도 개입이 가격을 누르고 있지만, 사태 여파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다양한 정책 수단이 병행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유가정보시스템 오픈넷과 정유업계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매주 판매 가격이 발표되는 유럽 20개국의 3월 넷째 주 자동차용 경유 평균 가격은 1ℓ 당 3천538.7원으로, 한국 평균 1천815.8원의 2배에 육박했다. 3월 첫째 주 2천685.99원과 비교하면 852.71원, 31.75% 상승한 결과다.

같은 기간 한국 경유 가격은 1천680.4원에서 1,354원, 8.05%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4배가량 상승세가 가팔랐다.

국가별로는 네덜란드가 4천278.1원으로 가장 높았고, 덴마크와 핀란드가 각각 4천118.3원, 4천9.4원으로 뒤를 이었다. 가장 저렴한 슬로바키아가 2천718.9원, 헝가리가 2천888.1원으로, 이들 국가도 한국보다 900~1천원가량 비쌌다.

고급 휘발유 가격도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3월 넷째 주 유럽 19개국 고급 휘발유 평균 가격은 1ℓ 당 3천225.67원으로, 한국 평균 2천112원의 1.5배가 넘었다. 3월 첫째 주 2천754.81원과 비교하면 470.86원, 17.09% 상승한 것이다.

같은 기간 한국 고급 휘발유 가격은 1천972.7

원에서 139.3원, 7.06% 오른 것과 비교하면 상승세가 25배에 가까웠다.

한국의 가격 상승세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석유 최고가격제를 비롯한 정부의 가격 억제 정책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13일 정부는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처음으로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했다.

제도 시행 1주일 만인 3월 셋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이 전주 대비 723원 낮은 1천829.3원으로 내리는 등 가격 안정 효과가 나타났다.

일본도 지난달 19일부터 정유사에 휘발유 1ℓ 당 302엔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가격 억제 정책을 펼친 결과 3월 넷째 주 자동차용 경유 평균 가격이 1천558.7원, 고급 휘발유 가격이 1천768.1원으로 한국보다 낮았다.

이에 따라 체코가 오는 8일부터 주유소 마진을 제한하기로 하고, 폴란드도 석유류 세율을 낮추기로 하는 등 유럽 국가들도 가격 억제책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단기적 효과와 별개로 가격 억제책만으로는 이번 사태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당장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풀려도 원유 수급과 공장 운영 정상화에 최소 3개월은 소요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무엇보다 정부의 인위적 가격 억제 정책은 부작용도 있을 수 있어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다. /연합뉴스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 상무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운남지국 952-1687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평지국 371-9584
- 수원지국 955-0451
- 광신지국 944-0993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포지사 061)278-0740
- 남목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나주지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여수지사 061)651-6433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장흥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자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